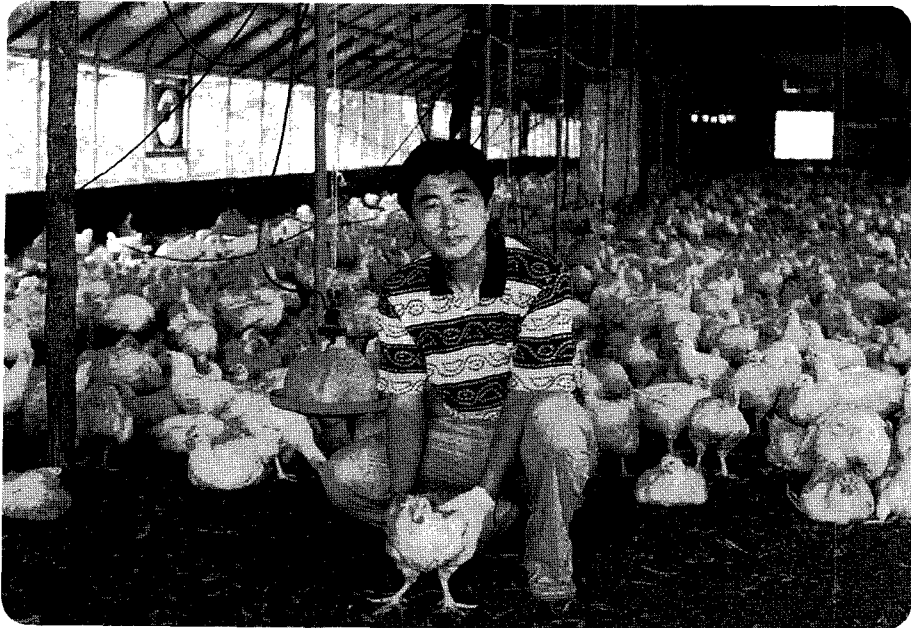


계군상태 조기점검이 중요

□ 취재/김동진 기자



△출하를 앞두고 닭의 상태를 체크하는 염명호 사장

최 근들어 국내 육계산업은 국제화시대에 발맞춰 계열화, 자동화 등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은 물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육계가격 등락의 변동폭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육계업을 경영하는 농가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어 가고 있다.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서

14년동안 육계업에 몸담아온 염명호 사장(40세)은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며 '92년에는 미원 사료에서 시상하는 우수농가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93년 한국양계박람회에서 우수양계인으로 선발되는 등 타 농가의 모범이 되고 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유명산

줄기를 배경으로 자리잡은 전진농장은 지난 '90년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평당 50수 기준으로 사육되고 있는데 건평 220평(11,000수 사육)규모 2동, 120평(6,000수 사육)규모 1동으로 총 2만8천수 규모의 닭을 길러내고 있다.

어릴때 부터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 것을 즐겨한 염사

장은 국민학교때 시골을 떠나 도시에서 공부를 마쳤으나 흙에 대한 향수와 평소에 농장 관리의 꿈을 버리지 못해 학교를 졸업하고 '70년대 초에 산란계를 잠시 키우면서 닭과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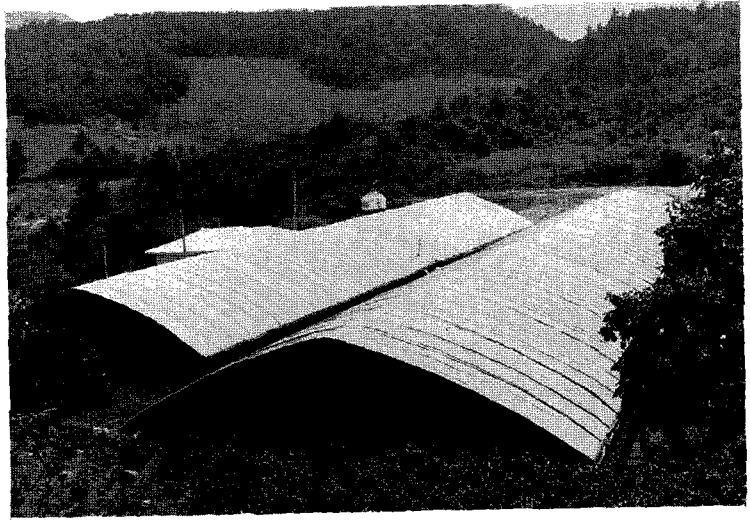
군생활을 하던 '75년 부인 노춘옥(39세)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79년 군을 제대하고 이듬해인 '80년 5월부터 2천수 규모로 본격적인 육계업을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사양일지를 작성하는 습관을 길렀고 이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하며 사양 기술을 익혀오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닭을 관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닭결에 매일 붙어 있으며 계군의 생태를 조기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사장은 사양관리를 하는데 특별한 비법이 있는게 아니고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부지런함을 강조한다.

즉 방역프로그램 등 기본적인 사양기술을 바탕으로 경험에 의한 닭의 생리를 파악, 기록하는 습관을 생활화 하면서 서로의 성적을 비교 분석하여 개선책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한 전진농장 전경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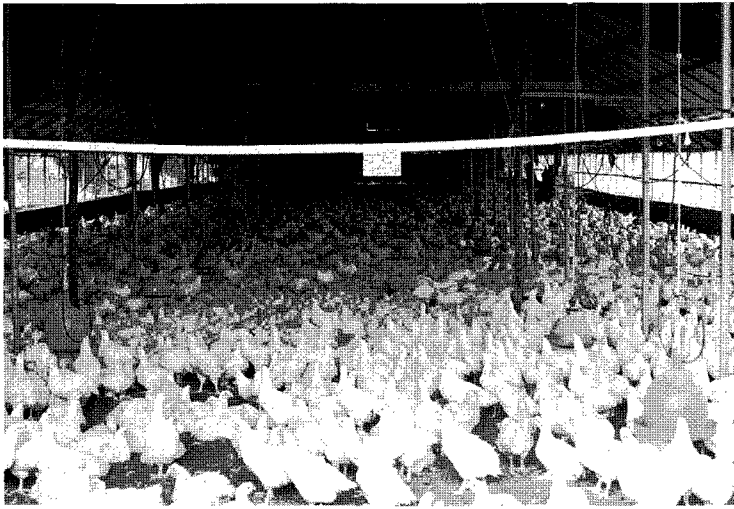
초기에는 관리미숙, 갑작스런 질병업습, 노동력에 의한 사료급여, 가격하락에 의한 적자 등이 가장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원인을 찾아 개선점을 보완하였다. 역경을 극복하는데는 누구보다도 부인의 뒷바라지가 큰 힘이 되었는데 육계를 사육하는데 잡다한 일을 도맡아 왔기 때문에 칭찬보다는 미안함을 항상 느낀다.

염사장은 생산원가를 750원으로 보고 판매가를 900원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그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으며 생산지수 170을 손익분기점으로 잡아 평균 190을 능가하는 우수한 성적을 보였는데 지난 '91년 4월에 생산된 성

적을 보면 생산지수 210까지도 기록했다.

**기본적인
사양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하는 습관을
생활화 하면서
개선책을 찾는데
역점을...**

표1은 지난 '91년 1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 40일간 사양일지에 기록된 전진농장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이다.



△평당 50수 기준으로 1만1천수가 사육되어지는 육계사 내부

표1. 사육성과 분석표

연 영 생 산 비	(1) 입추일자 : '91. 1.21 (2) 입추수수 : 18,000 (3) 출하일자 : 3/1~3/3 (4) 출하 수수 : 17,310 (5) 사육기간 : 40.7일간 (6) 출하총중량 : 29,380kg (7) 총사료소비 량 : 57,675 (8) 사료요구율 : 1.97 (9) 육성율 : 96.2% (10) 수당평균체중 : 1.7kg
-----------------------	---

항 목		계군당	1수당	kg당	%
경 영 생 산 비	○ 초생추대 4,500,000	4,500,000	153. ¹⁷	153. ¹⁷	20
	○ 사 료 비 14,381,270	14,381,270	489. ⁴⁹	488. ⁷¹	63.9
	1) 전기사료(900포) 22,400kg 2) 후기사료(1,411포) 35,275kg			3,331kg	
	○ 인 건 비 1,200,000(출하비용)	1,400,000	}122. ³⁸		6.2
	○ 연 료 비 800,000	800,000		3.5	
	○ 수도·광열비 50,000	50,000		0.2	
	○ 방역위생비(소독약, 백신, 투약)	380,000		1.7	
	○ 건물·기구 수리유지비(감가상각비)	504,000		2.5	
	○ 기타비용(자리깃, 조새공과금, 물품구입)	460,000		2.0	
	합 계	22,475,270			764.99

* 계육판매 수입 24,728,920	* 수익금 2,257,650
○ 1차판매 : 3월 1일(11,000수), 총중량(18,080kg), 금액(844원)	* 생산지수=204
○ 2차판매 : 3월 3일(6,310수), 총중량(11,300kg), 금액(838원)	

18,000수를 입추하여 17,310수를 출하해 96%의 육성율을 보인 이 계군은 생산지수 204, kg당 생산원가 76,499원을 각각 기록하여 총 수익금이 2,253,650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농장은 톱밥발효계사로 1년에 6회전을 원칙으로 하는데 1년 평균가격을 보면 생산원가 이하를 기록해 본 적이 없는 완벽한 사양기술을 발휘하고 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폐사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염사장은 사양관리를 하면서 다음 4가지에 특히 유념하고 있다.

첫째는 입추전 방역관리인데 톱밥발효계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질병에 각별히 유념해야 되며 출하때 닭차들의 진입으로 오염원을 제거하지 않으면 1년에 6회전을 하는데 위험성이 있어 휴지기간인 20~25일 내에 5차례에 걸쳐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계사구석구석을 소독한다.

둘째는 병아리 선택인데 성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강한 품종을 선택하여 기르고 있으며 여직 한품종만을 고수

하고 있어 그 닭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접근이 쉬웠다.

즉 병아리 선택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중에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는 병아리를 받고 본격적인 육성기인 2주까지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 낮은 일령으로 갈수록 온도보다는 환기와 온·습도를 중시하고 있다. 1일령때의 관리를 살펴보면 온도 33℃, 습도 65~70%를 유지하고 첫날은 8% 설탕물을 따뜻하게 먹이고 2시간 후부터 축축한 사료를 먹이는 등 세심한 주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위를 기울이는 때는 전·후기 사료를 바꿀때인 4주말(0.8~1kg 성장시)인데 이때는 육성이 빨라지며 급격한 변화가 오는 시기이므로 사료를 서서히 바꿔가며 호흡기 감염이나 설사등에 유념하여 관리한다면 훌륭한 닭을 키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평지역에는 2만수 규모 53개 농가가 생산에 가담하고 있는데 계약농가가 40% 일반농가가 60%가 되며 모든 농가가 분회에 가입되어 육계출하시 별 어려움없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염명호·노춘옥씨 부부

계근소운영을 위해 회원들이 2인 1조가 되어 교대로 야간근무를 서며 본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에 대한 염사장의 견해는 결코 부정적이지 아니다. 사양기술 지도, 시설자동화, 부부노동 집약적으로 방향을 이끌어나가고 생산비의 70%를 차지하는 사료비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하게 되면 생산비를 줄일 수 있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다.

또 농민단체에서는 자가배합사료를 지역이나 분회단위로 자체 생산되도록 노력하여 생산비를 줄이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것이라 말한다.

“육계업은 예전과는 달리 시설하는데 자본이 많이 들고 시세변동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인 돈벌이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라며 신규업자들에게 충고의 말을 전하기도 한다.

앞으로 전진농장은 합리적인 부부관리체제 경영으로 10만수까지 확장해볼 계획을 갖고 있다.

영농후계자로 선정된 염명호 사장은 육계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 노력할 것이며 기술보급 차원에서도 연구를 계속하여 양계업은 물론 축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다. **인계**